

## II. 정치 및 경제 현황

### 1. 정치·외교 현황

#### 가. 근대 정치연혁

##### □ 영국의 식민지배

- 19세기 영국의 골드 코스트 (Gold Coast) 점령 이전에는 아칸 (Akan)족의 부족국가들이 다수 존재하였으며, 이에 대항해 판테 (Fante)족의 부족연합이 형성되기도 하였음.
- 영국은 아칸족의 연합국인 아산티 (Ashanti) 왕국과 판테족의 세력쟁탈전을 이용해 해안 지역에 걸친 골드 코스트를 영국의 식민지로 공고히 하는데 성공하였음.
- 영국은 아산티 왕국과 수십년에 걸친 전쟁 끝에 1902년 1월 1일 아산티 왕국을 영국령 골드 코스트에 병합시켜 '골드 코스트 직할 식민지 및 보호령'으로 통치함.

□ 독립 과정

- 1897년 부족의 토지를 영국 왕실의 소유지로 병합하는 법안에 반대하는 '원주민 이익 옹호협회'가 결성되었으며, 1920년 아크라에서 '서아프리카 민족회의'가 결성되었음.
- 1947년 단쿠아 박사(Dr. Danquah)에 의해 '통일 골드 코스트 회의(United Gold Coast Convention: UGCC)'가 결성되어 자치정부 수립운동이 전개되기 시작함.
  - 당시 서기장이었던 크와메 은크루마 (Kwame Nkrumah) 박사는 청년층을 중심으로 한 민족독립운동을 추진하였으며, 1949년 6월 회의인민당(Convention Peoples Party: CPP)을 조직하여 독립운동을 전개하였음.
- 회의인민당(CPP)은 1951년 입법의회 (Legislative Council) 선거에서 승리하였으며, 투옥 중인 은크루마 박사가 1952년 3월 골드 코스트의 첫 총리로 취임함.
  - 회의인민당(CPP)은 1954년과 1956년의 선거에서 계속 승리하였으며, 영국은 가나의 독립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게 됨.
- 1957년 3월 6일 골드 코스트는 '가나'라는 국명으로 독립하여 2차 대전 종전 이후 서부 아프리카 최초의 독립국가가 되었으며, 은크루마 박사가 가나의 초대 대통령으로 취임함.
  - 1957년 독립 당시 가나는 은크루마를 수상으로 하는 준연방제 (Semi-federal system)를 도입하였으나, 1959년 지방의회 해산 후 1960년 4월 실시된 국민투표를 통해 공화국이 되었

으며, 대통령 선거에서 은크루마가 당선되어 제1공화국의 초대 대통령에 취임함.

## □ 공화국과 군사 쿠데타

### <제1공화국>

- 은크루마 대통령은 집권 후 1964년 2월 국민투표를 실시하여 CPP를 제외한 모든 정당의 활동을 금지하는 일당 독재체제를 구축함.
  - 은크루마 대통령은 재판 없이 정적들을 투옥시킬 수 있도록 법을 제정하여 야당 인사들을 탄압하는 등 정치적 불안을 조성하였음.
- 집권 후 사회주의정책을 추구하여 서방 자본주의 국가들과의 관계가 악화되었으며, 동구권을 제외한 국가들의 투자가 감소하여 경제 불황에 직면함.
- 대외적으로는 범아프리카 민족주의를 주창하며 서구 열강의 식민 지배 하에 있는 아프리카 국가들의 독립 투쟁을 지원함.
  - 이집트의 나세르, 유고의 티토 등과 함께 비동맹 회의 창설에 주도적인 역할을 함.

### <제1차 군사 쿠데타>

- 1966년 2월 은크루마 대통령은 베트남의 화평 문제로 미얀마, 중국, 북베트남을 방문하던 중 엠마뉴엘 코토카 (Emmanuel Kotoka) 대령이 주도한 군사 쿠데타에 의해 실각되었음.

## II. 정치 및 경제 현황

- CPP 정권을 전복시킨 군부는 헌법을 폐기하고 조셉 앙크라 (Joseph Ankrah) 중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민족해방평의회 (National Liberation Council, NLC)를 결성하였음.
  - 군부는 은크루마 정권이 체포해 구금했던 정치범들을 모두 석방 하였고 친서방 정책을 추구하였으며, 인근 아프리카 국가들과의 관계 개선에 주력함.
- 앙크라는 1969년 2월 뇌물 수수사건으로 아프리카 장군에게 정권을 이양하였음.
  - 1969년 8월 총선거에서 진보당(Progress Party, PP)의 코피 부시아(Kofi Busia)가 총리에 당선되면서 민정이 복귀됨.

### <제2공화국>

- 부시아 정권 집권 초기에는 앙크라 군사정권의 친서방 정책과 인근 국가와의 우호관계 증진 정책을 지속하였으나, 1969년 12월 외국인 준수법(Aliens Compliance Order)에 의해 나이지리아, 토고, 니제르인 등 외국인을 추방하고 1970년 공무원을 대거 해임 하는 사건 등으로 국내외의 비난을 받음.
- 외국인 추방으로 인한 노동력 부족과 그에 따른 생산 감소, 대외 신용도 하락 및 외국인 투자 감소로 인해 가나 경제는 심각한 타격을 받았으며, 1971년 12월 세디(Cedi)화의 평가절하 조치로 물가가 폭등하며 경제적 파탄이 초래되었음.

- 1970년 대통령제의 부활로 전(前) 최고재판소 장관 에드워드 아쿠포-아도(Edward Akufo-Addo)가 대통령으로 선출되었으며, 1972년 1월 부시아 총리가 영국을 방문하는 동안 이그나시우스 아체암퐁 (Ignatius Acheampong) 대령이 쿠데타를 일으켜 다시 군사정권이 수립됨.

#### <제2차 쿠데타>

- 아체암퐁 대령 주도의 무혈 쿠데타가 성공함으로써 부시아 정권은 붕괴되었으며, 아체암퐁 대령은 최고 군사 통치기구인 국가구제평의회(National Redemption Council)를 설치해 정권을 장악함.
- 아체암퐁 군사정권은 경제안정에 중점을 두어 식량 자급 정책을 추진하고, 1974년 채권국회의에서 누적된 대외채무의 장기 상환 협정을 맺었으며, 1975년 1월 경제건설 신 5개년 계획을 발표함.
- 1976년 9월 민정으로의 정권이양 방침을 발표하고 1977년 1월 정권이양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설치하였으나, 군사정권의 부패와 국제 에너지 파동으로 인한 정치, 경제적 불안으로 1978년 7월 아쿠포 (Fred Akuffo) 장군이 정권을 계승함.

#### <제3차 쿠데타>

- 아쿠포 장군은 1979년 1월 민정이양을 위한 정당활동을 허용하고, 행정상의 실권을 갖는 대통령 선거와 새 의회 구성을 위한 총선거를 1979년 6월 실시할 예정이라고 발표함.

## II. 정치 및 경제 현황

- 아쿠포 정권의 민정이양 준비 과정에서 공군 장교들의 쿠데타 미수 사건이 발생하여 주모자인 롤링스 (Jerry Rawlings) 대위가 체포되었으나, 1979년 6월 3일 롤링스의 지지세력에 의해 구출되어 4일 군사 쿠데타를 일으킴.
- 롤링스 대위 주도의 쿠데타 세력은 국가구제평의회(NRC)를 축출한 뒤 10명의 평의원으로 구성된 군사혁명평의회(Armed Forces revolutionary Council: AFRC)를 수립해 권력을 장악함.
  - 군사혁명평의회(AFRC)는 아체암퐁 군사정권 당시 부패 고위 관료와 군 장성들을 숙청하였으며, 아쿠포 군사정권이 공약한 대로 6월에 총선거, 7월에 대통령 선거를 실시하였음.
  - 선거 결과 인민국가당(People's National Party : PNP)의 리만 (Hilla Limann)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었으며, 롤링스는 리만에게 정권을 이양하고 군으로 복귀함.

### <제3공화국>

- 1979년 9월 출범한 리만 정부는 정치안정, 경제회복, 민주질서 확립에 주력하였으나, 집권당의 분열과 연합세력의 이탈, 경제 침체 가속 등으로 정치, 사회적 불안이 점차 증가함.
  - 리만 정부는 국민 불만 해소를 위해 최저임금 상승, 중농 및 경제 안정화 정책을 추진하였으며, 정치 안정을 위해 집권당 내 반발세력 무마, 군소정당 세력 규합에 주력하였음.

- 군사혁명 방지를 위해 군부 개편, 군 통수체제 조정, 군인 처우 개선 등의 정책을 실시하였으나, 장기 경기 침체가 가져온 심각한 경제난으로 국민들의 불만이 고조되었음.
- 1981년 12월 롤링스는 2차 쿠데타를 일으켜 리만 대통령을 체포하고 제3공화국을 전복시킴.

#### <제4차 쿠데타>

- 롤링스는 임시 통치기구인 임시 국가 방위 평의회(Provisional National Defence Council: PNDC)를 설치하고 의장에 취임해 3권 분립을 규정한 헌법을 중단시키고 포고령으로 통치를 시작함.
  - 국가 평의회(State Council)를 폐지하고 의회를 해산시켰으며, 모든 정당활동을 금지함
  - 전국의 마을과 공장에는 임시 국가 방위 평의회(PNDC)의 하부 조직인 인민방위위원회가 설치됨.
- 장기간에 걸친 군사통치에 대한 국민들의 불만과 아프리카 전역에 걸친 민주화 흐름 및 원조국들의 민주화 압력에 따라 1991년 1월 신헌법 제정 계획을 발표하고 헌정 복귀를 시사함.
  - 1991년 8월 신헌법 제정을 위한 의회를 구성하고, 1992년 1월 헌정 복귀 의사를 공식 발표한 후, 3월에 헌정복귀와 민정이양 일정을 공표함.
  - 1992년 4월 신헌법안이 국민투표에 의해 채택되었으며, 5월에는 정당 결성 및 정치활동이 허용됨.

## II. 정치 및 경제 현황

- 롤링스는 민족민주회의(National Democratic Congress, NDC)를 창당하여 1992년 11월 실시된 대통령 선거에서 유효투표의 58.3%를 얻어 대통령으로 당선됨.
  - 12월 실시된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여당인 NDC가 다수 의석을 차지한 가운데 1993년 1월 제4공화국이 출범함.

### <제 4공화국>

- 1996년 12월 실시된 대통령 선거에서 유효투표의 57.2%를 얻은 NDC의 롤링스 후보가 39.8%를 얻은 신애국당(New Patriotic Party : NPP)의 존 쿠푸어 (John Agyekum Kufuor) 후보를 누르고 승리를 거두어 1997년 1월 제4공화국의 2대 대통령으로 취임함.
  - 대선과 동시에 실시된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총 200개의 선거구 중 NDC가 133석, NPP가 60석을 차지함.
  - 부통령으로는 롤링스의 러닝메이트인 존 아타 밀스(John Atta Mills)가 취임함.

### □ 평화로운 정권교체를 통한 정치 안정세 유지

- 2000년 12월 대선에서 신애국당(New Patriotic Party: NPP)의 쿠푸어 후보가 국민민주회의(National Democratic Congress: NDC)의 밀스 (John Atta Mills) 후보를 제치고 대통령에 당선되면서, 아프리카에서는 드물게 민주선거를 통한 평화적 정권교체가 이루어졌음.



- 19년에 걸쳐 장기집권한 톨링스는 3선 출마를 금지한 헌법 규정에 따라 출마하지 않았으며, 가나는 독립 이래 최초로 민선 정부에서 민선정부로 정권이 이양됨.
- 대선과 동시에 실시된 국회의원 선거에서 여당인 NPP는 총 200개 선거구 중 100석을 차지하였으며, NDC는 92석, PNC (인민회의당)은 3석, CPP는 1석, 무소속은 4석을 각각 차지함.
- 과중한 외채와 물가 상승으로 인해 경제 현안 해결이 시급했던 쿠푸어 정부는 민간경제 활성화와 외국인 투자 유치를 통해 경제를 회복하려 함.
- 2001년 고채무빈국 해결방안 (HIPC Initiative)에 참가하였으며 IMF와 세계은행의 지원을 받아 경제성장과 빈곤퇴치 전략을 추진함.
- 2004년 12월의 대선에서도 쿠푸어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하여 총 8년간 안정적인 통치체제를 유지하였으나, 3선을 금지하는 헌법에 의해 2008년 12월 퇴임하게 되었음.

## 나. 최근 정치상황

### □ 부정부패 척결 수사 등 여야간 정치적 갈등 우려

- 2008년 12월 대선에서 NDC의 밀스 후보가 NPP의 아도 (Addo) 후보에 근소한 차이로 대통령에 당선되었으며, 총선에서도 여당인 NDC가 총 230석 중 115석을 차지하면서 8년간 유지되어 온 NPP 지배체제가 종식되었음.

## II. 정치 및 경제 현황

- 향후 가나의 정치적 향방은 여당인 NDC가 NPP에 얼마만큼의 권력을 투사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 될 것임. 현재 NDC 정부는 부정부패 척결이라는 명분 하에 NPP 의원들에 대한 대대적인 수사를 진행하며 압박을 가하고 있어, 정치 갈등이 고조되고 있음.
- 밀스 대통령은 당내 및 정부 기관의 지지를 공고히 하는 데 주력하고 있으며, 그동안 NPP에 의해 지연되었던 예산안을 승인하며 빈곤층 지원을 본격화함과 동시에 농업 부문의 다변화, 정부지출의 효율성 제고 등 선거공약을 성실히 이행함으로써 국민들의 지지 확보에 박차를 가하고 있음.

### □ 부족 간 마찰 등 사회 불안 요인 잠재

- 2008년 12월 선거 기간 중 NDC와 NPP의 지지자들이 각자 승리를 주장하며 일부 도시에서 가두시위를 벌이기도 하였으나, 선거 결과가 확정된 이후부터는 정치집단 간의 마찰이 다소 누그러진 양상을 보이고 있음.

<표 II-1> 총선결과 의석분포 비교

정 당	2008	2004	2000	1996
국민민주회의 (NDC)	114	94	92	133
신애국당 (NPP)	107	128	100	60
인민회의당 (PNC)	2	4	3	5
회의인민당 (CPP)	1	3	1	1
무소속	4	1	4	1
총 의석 수	230 <sup>1)</sup>	230	200	200

자료 : 가나 의회, 가나 선거 위원회.

1) 동부지역의 Akwatia와 브롱아포 지역의 Asutifi South 2석의 결과는 아직 발표되지 않음.

- 부족 간의 마찰은 내란 및 전쟁을 일으킬 만한 수준은 아니나, 일부 지역에서 가끔 발생하고 있어 어느 정도의 사회불안 요인은 잠재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됨.

## 다. 대외관계

### □ 서방국가 및 중국과의 관계 강화

- 롤링스 대통령 집권기인 80년대 중반부터 자본주의 시장경제정책으로 전환한 가나는 경제발전에 필요한 원조 및 투자유치를 위해 미국, 영국을 비롯한 주요 서방국과 적극적으로 협력해 왔음. 쿠푸어 전 대통령 집권기인 2006년에는 5억 달러 규모의 원조자금을 받는 등 미국과의 관계를 강화하였음.
- 최근에는 인프라 건설 사업을 위해 중국에서 대규모 무상차관을 도입하면서, 대외관계의 중심이 미국, 영국 등 서방국가에서 중국으로 옮겨가는 양상을 보이고 있음

### □ 지역 내 외교적 영향력 유지

- 쿠푸어 전 대통령이 2003~04년 서부 아프리카 경제공동체(Economic Community of West African States: ECOWAS)의 의장을 역임하는 등 가나는 나이지리아와 더불어 서부 아프리카의 경제, 외교 분야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.
- 주변국인 토고, 베냉, 코트디부아르 등과의 정치·경제 교류 강화에도 역점을 두고 있으며, 지난 2007년 쿠푸어 전 대통령이 아프

리카연합(AU)의 의장으로 선출되면서 AU에서도 입지를 강화해 왔음.

## 2. 경제 현황

<표 II -2> 아프리카 주요국의 경제지표 비교  
(2009년 기준)

단위 : 억 달러, %

	나이지리아	가 나	케 나	남아프리카 공화국
GDP	1,841	155	291	2,877
인구(백만 명)	143.3	23.8	39.8	49.3
1인당 GDP	1,285	651	731	5,835
경제성장률	6.7	4.0	2.6	-1.8
실업률	4.9	11	40	24.0
소비자물가상승률	12.4	16.0	5.3	7.1
재정수지/GDP	-4.4	-9.7	-5.5	-5.7
상품수출	471	572	445	666
상품수입	-331	-844	-922	-660
경상수지/GDP	5.6	-9.2	-5.4	-4.0
외환보유액	432	245	385	397
총외채잔액	105	563	775	432
D. S. R.	0.9	8.3	3.9	8.8
환율(연평균, 달러)	148.84	1.41	76.00 <sup>주)</sup>	7.36

주 : 연말, 달러

자료 : EIU, Country Report 및 한국수출입은행, 세계국가편람, 2009.

## 가. 국내경제

<표 II-3> 주요 국내경제 지표

단위 : %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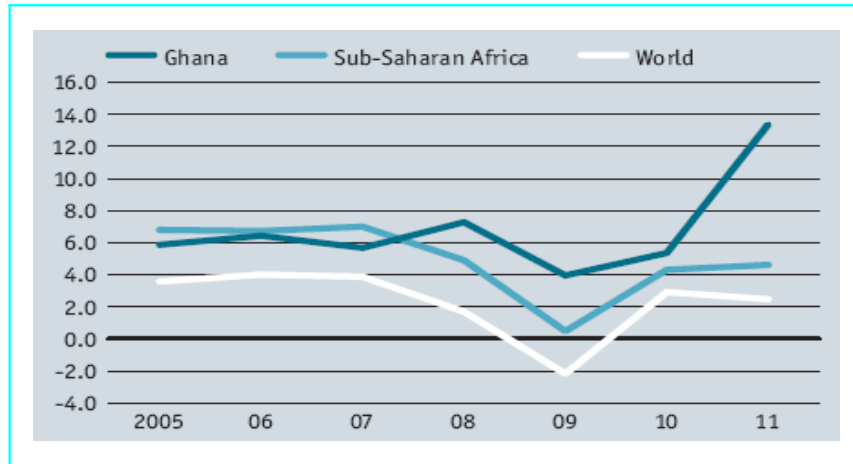
구 분	2006	2007	2008	2009 <sup>e</sup>	2010 <sup>f</sup>
경제성장률	6.4	5.7	7.3	4.0	5.4
재정수지/GDP	-7.5	-9.2	-14.5	-9.7	-8.7
소비자물가상승률	11.7	12.7	18.1	16.0	13.5

자료 : IMF, IFS, 2009 및 EIU, Country Report: Ghana, June. 2010.

### □ 경제성장 둔화로 경기침체

- 2005~07년 가나 경제는 금, 다이아몬드 등 귀금속을 중심으로 한 광업부문의 성장, 코코아의 수출 호조, 원조자금을 활용한 도로·항만 등 인프라 투자 확대에 힘입어 연평균 5.9%의 비교적 양호한 성장을 시현하였음.
- 2008년에는 세계경기침체에도 불구하고 농업의 호조, 통신·관광업 등 서비스 산업의 견실한 성장, 정부의 적극적인 개혁정책 추진에 힘입어 7.3%의 높은 경제성장률을 기록하였음.
- 2009년에는 세계경기침체에 따른 수출 증가세 둔화, FDI 감소 등의 영향으로 경제성장률이 4.0%로 낮아진 것으로 추정됨. 2010년에는 농업 및 서비스 산업의 호조와 주요 수출품인 금 가격 상승 등으로 가나 경제는 5.3% 성장할 것으로 전망됨.

<그림 II-1> 경제성장률 추이 비교



자료 : EIU, Country Report: Ghana, June. 2010.

□ 재정수지 적자기조

- 재정수지는 정부의 비효율적인 조세 운영, 보조금 지급, 과중한 외채 부담 등으로 인해 만성적 적자기조에서 탈피하지 못하고 있음. 특히, 2008년에는 1월 아프리카 네이션스컵 개최 및 12월 대통령 선거 등으로 재정지출이 큰 폭으로 증가하면서 재정수지 적자규모가 GDP의 14.5%까지 확대되었음.
- 2009년에는 세수기반 확충 노력으로 재정수지 적자규모 GDP의 10.3%로 감소하였으며, 2010년에는 금, 코코아 등 주요 수출 품목의 가격 상승에 따른 재정수입의 확대로 GDP대비 재정수지 적자폭은 GDP의 8%대로 축소될 전망이다

#### □ 소비자 물가 상승세 지속

- 수입관세 철폐, 비료 등에 대한 보조금 지급 등 정부의 적극적인 물가 안정 노력에도 불구하고 최근 수년간 지속된 국제유가 상승세에 따른 수입가격 상승의 영향으로 2008년 평균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16.5%를 기록하였음.
- 2009년 소비자물가상승률은 평균 18.2%를 기록한 것으로 추정되나, 하반기 가나정부의 긴축정책, 국제 원자재 및 식료품 가격의 안정세 등으로 연말 기준으로는 16%를 기록하였음.
- 2010년에는 정부의 긴축정책 강화, 양호한 농작물 작황으로 인한 식료품 가격의 안정세, 가나 세디(Cedi)화의 안정세 등에 힘입어 평균 소비자물가상승률은 2005년 수준인 10%대 초반으로 하락할 것으로 전망됨.

### 나. 대외거래

#### □ 경상수지 적자 기조

- 2008년 경상수지는 금, 코코아 등 주력 수출상품의 수출 호조에 도 불구하고 2007년 가뭄과 홍수에 따른 작황 악화, 국제유가 및 식료품 가격 상승에 따른 수입 부담 증가의 영향을 크게 받으며 GDP 대비 24%의 적자를 기록하였음.
- 2009년에는 국제유가 및 식료품 가격 안정으로 수입 부담이 다소 완화되며 GDP 대비 경상수지 적자는 15.8%로 낮아진 것으로 추정되며, 2010년에는 금, 코코아의 국제가격이 상승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향후 경상수지 적자 폭은 더욱 축소될 전망이다.

□ 점진적 외채구조 개선

- 2004년까지만 해도 총외채규모가 GDP의 80%에 육박하는 등 외채부담이 심각하였으나, 2004년 HIPC (Heavily Indebted Poor Countries) 이니셔티브 완결시점 달성 및 2006년 MDRI (Multilateral Debt Relief Initiative) 프로그램에 의해 대규모 채무탕감을 받은 이래 비교적 양호한 외채상환능력을 유지해오고 있음.
- DSR도 2005년 7.2%에서 2008년 1.7%까지 하락하는 등 양호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.

<표 II-4> 주요 대외거래 지표

단위 : 백만 달러, %

구 분	2006	2007	2008	2009 <sup>o</sup>	2010 <sup>f</sup>
경 상 수 지	-1,043	-2,151	-3,543	-1,441	1,551
경상수지/GDP	-8.2	-14.3	-21.2	-9.3	-8.6
상 품 수 지	-3,027	-3,894	-4,999	-2,721	-2,604
수 출	3,727	4,172	5,270	5,715	6,843
수 입	6,754	8,066	10,269	8,437	9,447
외 환 보 유 액	2,268	2,808	2,028	2,450	3,150
총 외 채 잔 액	3,188	4,463	4,970	5,454	6,280
총외채잔액/GDP	25.0	29.7	29.8	35.2	34.6
D . S . R .	3.0	3.1	1.7	1.9	-

자료 : IMF, IFS, 2009 및 EIU, Country Report: Ghana, June. 2010.